

WOW는 '세계를 향한 창
(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입니다.

와우치데이

WOW CHEONGDAE



Summer

천년의 도시 청주,
한중일 문화 삼국지의
중심이 되다



Summer

여름이 열렸으니, 뜨겁게 안아주려 합니다.

바삭하게 마르는 빨래,
그림처럼 하얀 벽을 장식하는 그림자,
질어진 초록과 황홀한 노을의 물결까지,
아낌없이 주는 태양 하나만으로도
여름은 정말 특별하니까요.

유물에 담긴 시간



청자상감국화문침(靑磁象嵌菊花文枕)

청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상감청자가 전성을 이루던 12~13세기경에 제작된 청자베개입니다. 동체의 4면에는 국화문(菊花文)과 포도당초(葡萄唐草)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느다란 덩굴과 넓은 잎은 백토로 상감하였고, 포도 열매는 동그란 무늬도장으로 찍어서 백상감하여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안에 정교하게 검은 점을 하나씩 찍어 입체감을 준 것이 인상적입니다.



여름 한낮

짧은 꿈을 내려놓고

대밭 너머에서
한자락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한바탕 꿈을 꾸다네.
포도 넝쿨처럼 끝없는 영화를.
다홍 치맛자락처럼 찬란한 오후를.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5 SUMMER VOL. 68

청주대학교 소식지 <외우청대>의 '와우(WOW)'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ontents

02 Letter from President
총장 인사말

Special Theme

06 Special Report
천년의 도시 청주,
한중일 문화 삼국지의 중심이 되다

10 Special Symposium
문자문화도시 청주의 미래를 여는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의 저력

12 Special Addition
청주의 문화 이웃,
칭다오와 니가타

Glocal Report

14 Ready Action
사진으로 보는
2015 우암 대동한마당

16 Global Experience
낮선 땅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한
나의 첫 번째 사회생활

18 Local Together
세종대왕, 청주에 납시대
1444년 어가행차 현장으로의 시간여행

WOW People

22 청인보(淸人譜) 제1장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
강윤제 동문(산업디자인학과 졸업)

26 청인보(淸人譜) 제2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이재길 동문(행정학과 졸업)

28 청인보(淸人譜) 제3장
칸·모스크바 영화제 초청작 <설화> 감독,
영화학과 김윤식 교수

30 Photo Essay
나에게 머물다,
온전한 나를 보다, 키우다

We Are Young

32 Young Challenger
김희원(체육교육과 13)
이효진(연극학과 12)
박동엽(항공운항학과 12)
이영복(간호학과 10)
이순재(건축공학과 석사과정)

Issue & News

38 Focus On
청주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착수 외

42 News Brief
산업디자인학과, 8년 연속 레드닷 수상 외

44 People News
교수소식 조승래 교수,
학술원 2015 우수학술도서 선정 외
동문소식 장호수 동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임명 외

46 Special Lecture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명사특강 외

48 Donation Guide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와우청대 2015년 여름호(통권 68-2호)

발행일 2015년 7월 30일 / 발행인 황신모 / 편집인 어일선 /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363-76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 촬영 이원재 / 취재 이은형 / 표지모델 우민희(도시계획부동산학과 13) / 가격 3,500원

학생중심, 교육중심의 가치로 중부권의 새로운 거점대학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쉼 없이 달려와 어느덧 여름을 건너고 있고, 청주대학교 캠퍼스는 질푸른 여름 속에서 저마다의 열매를 살찌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주대학교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충청권 사립 1위 대학, 충청권 사립 거점대학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설립자 청암, 석정 선생의 건학정신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구현해 학생중심의 대학, 교육중심의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 우리대학은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학문단위 특성화사업 강화 △국제화 경쟁력 강화 △재정확대 및 건전성 확보 △산학협력사업 강화 △행정 조직 역량 강화 △시스템 경영의 정착 등의 계획들을 실천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적립금 투자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입

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300억 원, 학문단위 특성화사업에 150억 원, 국제화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캠퍼스 조성사업에 360억 원,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사업에 100억 원, 시스템경영사업에 80억 원 등 약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으로 2025년까지 약 1,800억 원의 적립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를 실현하여 향후 3년 이내에 전국 대학 40위권의 상위권 대학에 진입할 것입니다.

청주대학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학정책에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다운 대학,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역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봉사 1위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구성원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제가 먼저 실천하며 이 꿈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청주대학교에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황신모



황신모 총장, 성년의 날 생일축하 이벤트 참여
지난 5월 18일, 황신모 총장이 박명원 총학생회장과 함께 이날 생일을 맞은 성년의 날 대상자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을 찾아 피자를 증정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늘려가겠다는 황신모 총장의 뜻과, 성년의 날을 특별히 축하하고 의미를 되새기고 싶어하는 총학생회의 목적이 서로 맞아 열리게 됐다. 황신모 총장은 "성년의 날을 국가적으로 지정해 기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젓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신모 총장, 청풍기 유도대회 개막식 축하
황신모 총장이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대학 다목적종합문화체육관에서 열린 통합청주시 출범 1주년 2015 청풍기 유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황신모 총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최대 유도대회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는 청풍기 전국유도대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유도인들의 표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우리대학 역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 문화체육관 또한 청주시민과 충북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ulture City of East Asia



지난 3월 9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개막식.
청주의 역사와 생태, 교육, 문화예술이 한 데 모여
아름다운 '생명의 대합창'을 보여준 뜻깊은 시간이자 일 년 동안 지속될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위대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Special Theme

천년의 도시 청주, 한중일 문화 삼국지의 중심이 되다

한중일 3국의 상호간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의 장벽을 없애고,
문화를 통한 감동과 행복을 추구하는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다양한 공연과 전시, 학술대회, 시민교류행사를 통해
청주시는 한층 더 성숙한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06 Special Report

천년의 도시 청주,
한중일 문화 삼국지의 중심이 되다

10 Special Symposium

문자문화도시 청주의
미래를 여는 청주대학교

12 Special Addition

청주의 문화 이웃,
칭다오와 니가타

천년의 도시 청주, 한중일 문화 삼국지의 중심이 되다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는 아름다운 문화의 물결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생명의 대합창'이라는 큰 주제로 중국 칭다오(靑島), 일본 니가타(新潟)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의 자부심과 저력을 새롭게 발견해가고 있는 청주시는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년 365일 문화가 숨 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지난 3월 9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개막식장. 중국 칭다오시와 일본 니가타시 방문단과 청주시민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북의 대합주'가 무대에 올려졌다. 대북과 소북 수십여 개가 어우러져 역동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우리의 가락과 몸짓을 만들어낸 이 공연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취지를 매우 잘 보여준 인상적인 무대였다. 2015년 봄부터 겨울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오가며 전시와 공연, 공동연구, 학술행사, 시민교류 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로의 '차이'와 '같음'이 조화를 이루어 '아시아 속 더 큰 우리'로 나아가는 일에 청주시가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시에는 3국의 진정한 상생을 도모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칭다오, 니가타와 함께 청소년, 시민, 전문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폭넓은 교류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의 문화 행사와 시민참여 행사뿐만 아니라 3국의 역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행사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에 힘입어 청주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화감성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청주시가 가진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자원, 그리고 인적 인프라를 하나로 모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닮은 듯 다른 3국의 문화가 모두 한자리에

이번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더욱 흥미롭다. 지난 봄에는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 퍼포먼스와 3개 도시 문화탐구 워크숍 등이 열렸다. 여름에는 동아시아 문화주간 프로그램이 3국을 돌아가며 열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유모차 퍼레이드, 맘스캠프 프리마켓, 지방공항공포럼, 문자문화 학술회의, 3개 도시 교류공연, 동아리 경연대회, 동아시아 특별전 등이 전개된다. 특히, 시민동아리경연대회에서 청소년 분야 대상을 차지한 '청주농고 사물놀이'와 최우수상 '드림아이', 일반인 분야 대상에 빛나는 'KBS민요동아리'와 최우수상 '맘마미아 앙상블' 팀은 칭다오와 니가타를 직접 방문해 공연하는 영광을 안았다.

가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짓가락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다. 짓가락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와 공연, 학술대회, 짓가락을 이용한 경연대회 등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는 3국의 공통된 문화원형인 짓가락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하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 계절인 겨울에는 3개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과 시민들이 대거 함께 참여하는 잔치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 각국에서 15명씩 참여하는 청소년교류도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가장 먼저 교류가 시작되는 니가타는 7월 26일부터 4박 5일간 니가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니가타 소재 박물관과 미술관을 탐방하고, 니가타 마쓰리 축제에도 참여하게 되며, 음식과 음악, 영화, 영상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이어 청주시에서는 7월 30일부터 3박 4일간 청주권의 주요 문화공간을 탐방하고 역사문화, 음악, 캘리(손글씨) 등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창조학교가 운영된다. 마지막 주자인 칭다오에서는 8월 4일부터 4박 5일간 칭다오 시내의 주요 박물관 미술관 탐방과 요트체험,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주민족예술제, 청주읍성큰잔치, 청원생명축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의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이며, 문자서예대전, 한중일진경산수화전 등도 연계사업으로 열린다. 이와 함께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주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기념 특별전 등의 지역간 교류 프로그램도 대기하고 있다.

직지의 도시 청주,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꿈꾸다

2천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인쇄한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시에게 이번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청주시는 이번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계기로 청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키우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현장을 찾아 다니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토론과 공연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담론을 만들어가는 동아시아 창의학교, 청주 출신 유명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고향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홈커밍데이, 시민의 애장품과 삶의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민 스토리박물관 등 아이디어가 빛나는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 중이다.

또한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청주공항을 아시아 거점공항으로 키우는 생명·문화공항 프로젝트, 동아시아 전통시장의 멋과 맛을 한자리에 서 만나는 동아시아 토종시장,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로그 시티, 친환경 공예와 디자인을 결합한 생명 공예·디자인마을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시와 공연, 학술, 시민커뮤니티 등의 시민주도형 사업은 2015년 한 해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 현지의 기관단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어서 청주시의 문화적 가치를 동아시아에 널리 알릴 기회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㉔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하반기 주요 공식행사

| 도시 | 행사명 | 일시 | 주요 내용 |
|--------|---------------------|---------------------------------|---------------------------------|
| 청주 | 청소년 문화교류 | 7. 30~8. 2 | 3개 도시 청소년 참여 문화탐방 및 교류 |
| | 청주민족예술제 | 8. 21~8. 24 | 청주민족예술제 주관 3개 도시 교류사업 |
| | 청주읍성큰잔치 | 9. 5~9. 6 | 3개 도시 청년거리 공연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기념 교류전 | 9. 2~9. 23 | 2014, 2015 문화도시 작가 초청 교류전시회 |
| | 청원생명축제 | 10. 2~10. 11 | <생명문화> 주제의 학술회의 |
| |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 10. 8~10. 10 | 축하 및 교류 공연 |
| | 한중일 진경산수화전 | 10월 중 | 3개 도시 작가들의 대표작 전시 및 교류 |
| | 한중일 문자서예대전 | 10월 중 | 문자서예전시 및 교류 |
| | 가을축제, 짓가락 페스티벌 | 9월~12월 | 짓가락주간 행사, 공예비엔날레 연계 체험행사 |
| | 동아시아창조학교 | 매월 1회 | 도시, 문학, 음악, 생명, 영상 등 매월 테마별 운영 |
| 청주 폐막식 | 12. 18 | 3개 도시 대표단 및 공연단 참여 공식행사 및 폐막 공연 | |
| 칭다오 | 청소년 문화교류 | 8. 4~8. 8 | 3개 도시 청소년 참여 문화탐방 및 교류 |
| | 시민 오왕(五王) 장기자랑 | 10~11월 | 가왕, 무왕, 화왕, 금왕, 소왕 선발 경연대회 |
| | 한중일 애니메이션 창의경기대회 | 7~10월 | 공모전 통해 우수작 전시, 작가 팬미팅 |
| | 한중일 예술제 | 10월 중 | 3국 대표 공연팀 교류 |
| | 한중일 문화예술 교육포럼 | 11월 중 | 3국 관계자 참가, 포럼 진행 |
| | 칭다오 폐막식 | 11월 중 | 3개 도시 대표단 및 공연단 참여 공식행사 및 폐막 공연 |
| 니가타 | 청소년 문화교류 | 7. 26~7. 30 | 3개 도시 청소년 참여 문화탐방 및 교류 |
| | 연날리기 대회 | 7월 중 | <물과 흙의 예술제> 기간 중 3개 도시별 참여 |
| | 어린이 합창교류 | 8. 12~8. 15 | 니가타 축제기간 중 3개 도시 공연 |
| | 니가타 만화대상 | 8. 14~9. 7 | 만화공모전 |
| | 미디어 교류 | 9월 중 | 신문, 방송 분야 교류 및 탐방 |
| | 서도교류 | 9월 중 | 3개 도시 서도작가 작품 전시 |
| | 한중일 도시 회담 | 10. 21~10. 23 | 문화창조 관련 발표 및 토론 |
| | 니가타 폐막식 | 11. 23 | 3개 도시 대표단 및 공연단 참여 공식행사 및 폐막 공연 |

문자문화도시 청주의 미래를 여는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의 저력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이후 청주시는 교육의 도시, 직지의 도시 다음으로 '문자문화도시'라는 또 하나의 별칭을 갖게 되었다.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모여 각국 문자의 기원과 의미를 짚어본 학술대회에서는 초정이 세계 문자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한글의 우수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중일 3국이 문자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마련했다.



한글의 고향, 초정에서 열린 한중일 문자학술대회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청주시는 각계 교육 및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운데 우리대학 한국문화연구소는 학술회의 공동주관과 후원, 개·폐막식 통역 등의 자원봉사와 주요 자료 번역사업 등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위치한 세종스파텔에서 열린 '한중일 문자학술대회'에서도 우리대학 한국문화연구소 소장이자 문헌정보학과 교수인 송재국 인문대학장과 김상태 교수가 대표 발표자로 나서 각각 한글의 창제원리와 함께 천지인(天地人) 3재의 가치, 한자와 한글, 가나문자의 구성원리에 대한 차이점을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청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물론이고 초정리 인근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삼국의 문자, 문화원형으로서의 상상력과 가능성

문자는 인간이 축적해 온 지식과 지혜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수단이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문자가 살아 숨 쉬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문자문화와 관련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 송기중 전 서울대 교수는 이번 한중일 문자학술대회 기초발제에서 "자국의 문자를 갖고 국경일로 만들거나 문자박물관을 건립하는 등의 노력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한글·한자·가나문자 등의 나라별 문자를 다양한 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되 한중일 3국이 함께 문자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자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초정약수는 세종대왕이 행궁을 짓고 요양을 하며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선의 르네상스를 펼친 곳"이라며, "이에 힘입어 청주시가 오래 전부터 문자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세계 문자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과 철학,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삼국의 문자를 논하다

이어 지정발표에 나선 우리대학 송재국 교수는 한글의 창제원리와 함께 천지인(天地人) 3재의 가치를 설명했다. 우리의 한글 속에는 천지인 3재가 내재되어 있으며 동양철학, 특히 주역의 사상과 과학,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이 위대한 것도, 한국인이 세계적인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대학 김상태 교수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자 구성원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자는 '문'과 '자'가 합쳐진 형태소이고, 한글은 여러 개의 자음과 모음이 모여 글자를 만들며, 가나문자는 한 음절이 한 글자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한자는 형태소, 한글은 자모, 가나는 음절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자의 형태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한편, 중국을 대표한 중국 칭다오대학의 풍국영 교수는 중국 한자의 기원과 형태 등을 소개한 뒤 한자가 중국문화에 미친 영향을 상세하게 소개했고, 문자가 문화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서예작품을 통해 소개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를 맞대고 문화담론과 미래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을 대표한 홋카이도대학의 잇시키 마이코 박사는 한글과 가나문자의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④



Mini Opinion

한글 창제 원리에 인류문명의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연구소장 송재국 교수
문헌정보학과 교수, 인문대학장

한글은 한민족의 정신적 원형입니다. 작가 필벽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자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했고,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세계의 알파벳"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한글의 우수성 가운데 저는 무엇보다 한글 창제의 원리, 즉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었고, 중성의 형상 또한 ·(天), 1(人), —(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모두 삼재의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중성)의 존재 의미란 하늘(초성)과 땅(종성)을 이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 사상의 중요한 바탕입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은 한결같이 사람의 도움과 참여로 비로소 그 본래적 존재 원리를 온전히 구현하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은 이러한 우주적 존재원리를 소리로서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글 창제 원리 속에 오늘날 인류문명의 대안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현대 문명의 문제들이 天(종교), 地(과학), 人(인류사회) 상호 간의 부조화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중심의 삼재적 조화 원리가 인류의 삶에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인류문명사적 의미는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 자원이 오늘날의 인류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의 문화 이웃, 칭다오와 니가타

청주시와 함께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두 도시,
중국 칭다오와 일본 니가타는 모두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들이다.
이번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예술과 학술 교류를 통해,
또 시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두 도시,
칭다오와 니가타를 소개한다.



남빛 바다의 도시
중국 칭다오(靑島)



물과 흙의 도시
일본 니가타(新潟)

중국 산둥반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마주하고 있는 산업도시이자 항구도시로, 당나라 때부터 무역항으로서 명성을 날렸다. 중국의 근대사를 이끌었던 강유웨이(蔣有威)가 남긴 “붉은 기와, 푸른 나무, 남빛 바다, 쪽빛 하늘”이라는 말은 칭다오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문구이기도 하다. 인구 896만여 명의 칭다오는 중국 10대 관광도시로, 10대 경제활력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 교통, 건축, 교육, 연구 분야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칭다오 맥주축제, 국제해양축제 등으로도 유명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 요트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250km 떨어진 바다와 강의 도시다. 일본 굴지의 2개의 대하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항구도시로 번성했으며, 국제거점 항구와 국제공항이 있어 일본의 동아시아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2개의 큰 강이 주는 풍부한 물과 흙으로 품질 좋은 쌀을 비롯해 풍족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니가타는 2005년에 14개의 시, 읍, 면 광역합병으로 식문화 외에도 지역에 뿌리내린 전통예능, 왕성한 교역에 의해 발달한 대접(おもてなし: 진심어린 마음으로 정성스레 손님을 대접하는)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물과 흙의 생활문화와 식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활동이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각종 음악제, 애니메이션 만화 페스티벌, 예술제 등의 축제가 일년 내내 계속되는 문화도시로, 일본을 대표하는 5대 항구 중 한 곳으로 꼽힌다.

Glocal Report

세계 속의 청주, 청대 안의 세계

드넓은 세계를 향한 '글로벌'의 가치와,
지역과 함께 세계를 꿈꾸는 '글로벌'이 공존하는 청주대학교에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배웁니다.

14 Ready Action

사진으로 보는
2015 우암 대동한마당

16 Global Experience

말레이시아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18 Local Together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어가행차 재연행사 참가 후기



소통과 나눔, 열정과 환희로 가득했던 3일간의 축제를 회억하며

사진으로 보는 2015 우암 대동한마당

5월은 그렇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5월 20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우리대학 축제, 우암 대동한마당은 캠퍼스 곳곳을 떠들썩한 젊음의 소통공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현장으로, 뜨거운 열정을 토해내는 화려한 무대로 바꾸어놓았다. 어느 해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를 아울렀던 2015 우암 대동한마당의 추억을 사진으로 만나본다.



S#1. 사랑의 놀이터

축제의 첫날, 용암동에 위치한 청주경희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초청된 200여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총학생회가 마련한 '사랑의 놀이터'에 초청된 아이들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에어바운스 놀이시설과 물총놀이 기구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 역할까지 한 총학생회 임원들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이들은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참가 어린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소정의 학용품도 전달했다.

2015 우암 대동한마당 역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사랑의 놀이터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늦은 밤까지 이어진 패션쇼와 연예인 축하무대에선 수 만 명의 함성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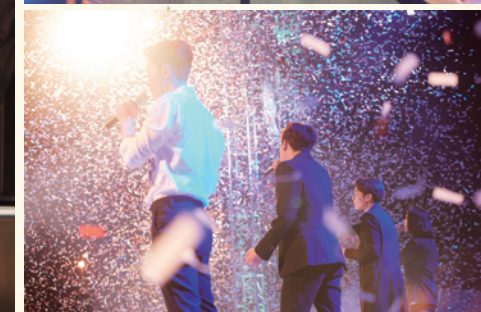


S#2. 한밤의 패션쇼

저녁 7시 해질 무렵, 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는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화려한 패션쇼가 시작됐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패션쇼에서는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의 옷들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메이크업과 헤어, 의상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프로페셔널을 선보인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의 런웨이는 봄밤을 곱게 수놓기에 충분했다.

S#3. 연예인 축하무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2만여 명의 인파를 불러모은 이날의 연예인 축하무대는 밤 12시가 다 되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발라드 가수 한경일의 열창에 이어 최근 가장 핫한 걸그룹 AOA와 4인조 보컬그룹 노을의 무대까지, 재학생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모두 노래로 하나되는 장관을 연출했다. 마지막을 장식한 월드스타 싸이는 3년 만에 청주를 다시 찾은 반가움 때문인지 1시간 반 가량이나 본인의 대표 히트곡 '연예인, 강남스타일, 챔피언, 낙원' 등을 수만 명의 관객들과 함께 부르며 뜨겁고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다. ㉠



낮선 땅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한 나의 첫 번째 사회생활

말레이시아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이가는 영어영문학과 11학번

우리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가운데 올해부터 신규 운영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턴십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자매대학에서 2주간의 사전 기초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말레이시아의 10대 기업으로 손꼽히는 버자야(Berjaya) 그룹 계열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6주에 걸쳐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인턴십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인턴십 프로그램 | |
|----------------|--|
| 지원자격 | 총 평균 평점 2.6 이상이며 토익 650점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회화 능력을 갖춘 본교 재학생(영문 이력서 및 영어 인터뷰 필요) |
| 교육내용 |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위치한 Berjaya University에서 사전 기초교육을 마친 후 말레이시아 10대 기업인 Berjaya 그룹에서 인턴으로 근무(무급) |
| 기간 | 학기 중 16주 |
| 학점인정 | 연수 수료 후 전공 또는 교양 12학점 인정 |
| 장학지원 | 연수 수료 후 다음 학기 수업료 50% 감면(단, 연수 학기가 졸업 전 최종 학기인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 파견 후 수확 보조금 150만원 지급 |



말레이시아 최고의 기업에서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 되다

언제부터인가 4학년이 되면 해외 인턴십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평소 기획 업무에 관심이 많아 해외기업들은 어떻게 기획을 진행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현지에서 영어실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도 컸다. 그러다 우연히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듣게 되었고, 그때 말레이시아 인턴십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프로세스도 매우 체계적이고, 인턴십 후기도 많아 믿음이 갔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학교 면접과 버자야 그룹 담당자와의 면접을 거쳐 드디어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었다.

인턴십 시작 전에 2주간 사전교육을 먼저 받게 되는데, 이 기간엔 주로 말레이시아 문화와 기업예절, 면접 준비 등 말 그대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 보통은 말레이시아에 오기 전에 버자야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들 중 일하고 싶은 곳을 정해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나는 올해부터 3, 4학년에 한해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인턴십'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 자산규모 1위 기업인 Maybank에서 일할 수 있었다. 기획 업무를 원했던 나는 인사부에서 매년 진행되는 'Maybank Go Ahead

Challenge(MGAC)'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받았다. MGAC 프로젝트는 Maybank가 있는 전 세계 14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경쟁하는, 일종의 '런닝맨+공모전 경쟁PT' 같은 프로그램이다. 덕분에 은행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활동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팀에 배정되었을 때 이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은 거의 끝난 상태였고, 홍보 단계에 접어들어 홍보용 노트 커버와 티셔츠 등의 디자인, 팀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내 대학교에 방문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MGAC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Campus level 때엔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이메일 과제 및 참가자 정보 확인 전화 업무와 Campus level 영상을 비롯한 기타 홍보영상들을 편집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했다. 일 자체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Maybank의 정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인턴이라기보다는 팀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진짜 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이슬람 문화와 익숙해지기, 그만큼 깊어진 교감과 그리움

사실 인턴십을 오기 전까진 말레이시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인 것도 몰랐고, 두 개의 반도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래서 처음 이슬람 국가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조금 겁이 났지만 막상 와보니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무슬림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도축했다는 표시의 '할랄(Halal)'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만 먹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거의 모든 식당과 제품에 할랄 마크가 붙어 있어 같이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함이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종교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이슬람에는 보통 6월에서 7월 초부터 시작해 한 달간 해가 떠있는 시간에는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물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지나치게 음식을 먹거나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대부분의 식당들이 낮에는 문을 열지 않아 식료품 등은 미리 구비해두어야 한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점심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일하는 대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하루 최대 다섯 번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도 모스크(Mosque)가 있어 무슬림 직원들은 매일 4시경이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같은 팀 인턴의 마지막 근무 날이다. 다들 그 친구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것 같아 나도 동참했고, 퇴근시간 무렵 케이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를 놀라게 해 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원들이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였다. 다름 아닌 나의 깜짝 생일파티였다. 생일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모두가 나를 축하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그때 친해진 말레이시아 친구들과는 한국의 친구들만큼이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사실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만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젠 그것이 가능한 일이란 걸 알게 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나는 방송국 PD라는 막연했던 내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반면,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번 말레이시아 인턴십을 통해 지식과 경험 면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내 꿈을 이룰 생각이다. ☺

세종대왕, 청주에 납시다. 1444년 어가행차 현장으로의 뜻 깊은 시간여행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어가행차 재연행사 참가 후기**
이지우 영화학과 15학번

지난 5월 29일부터 3일간 청주 지역 곳곳에서 열린 '제9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초정약수의 생명력을 모티브로 한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 중 하나다. 특히, 1444년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했다고 전해지는 초정리 광천수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거행된 어가행차 재연행사에는 우리대학 영화학과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나가며 그 의미를 더했다.



세종대왕의 부인, 소헌왕후 역할로 축제의 서막을 열다

청주 초정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9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청주 지역 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문화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직접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은 물론 지역의 문화축제를 좀 더 가까이서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영화학과 학생들 모두 이번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초정약수축제는 세계 3대 광천수로 잘 알려진 초정약수와 역대 왕 중에서 한글창제라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을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 행사였기에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5월 23일, 청주 시내 성안길 일대에서 영화학과 학생 52명과 37보병사단 장병들이 전야제 격인 세종대왕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세종대왕의 부인인 소헌왕후 역

할이었는데, 가체가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한복 치마도 너무 길어서 퍼레이드를 제대로 끝맺을 수 있을지 시작부터 걱정이 앞섰다. 퍼레이드 시작 9시간 전부터 모여 한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역할에 맞는 분장을 했다. 총 200벌에 달하는 한복을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전 행사인 만큼 알고 오신 사람들보다는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았다. 덕분에 아이들이 많아 행사를 진행하는 내내 아이들과 웃고 인사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행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10kg 이상 되는 가체와 네 겹 이상 끼입어야 하는 한복 때문인지 어지럼증이 왔고, 행사도중 왕비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돌아오는 옷지 못할 에피소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이후 포토타임은 다행히 한결 나아진 컨디션으로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었다.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젊고 뜨거운 에너지가 여기에

그렇게 사전행사를 잘 마치고 5월 30일 세종대왕 어가행차 재연행사 당일에는 초정문화공원 일대에서 본 행사에 앞서 영화학과 학생들과 지역주민 70여 명이 참여한 퍼레이드가 먼저 열렸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본 행사! 분명 사전 행렬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관광객들이 어림잡아 약 6만 명 정도 되는 정말 큰 행사였다. 퍼레이드 이외에도 젊은 층을 위한 물총싸움과 워터 슬라이드, 어르신들을 위한 초정장사 씨름대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예대회와 백일장대회, 텔런트 김유정 팬 싸인회 등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한 행사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중 가장 하이라이트 행사인 세종대왕 어가행차 재연행사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영화학과 학생들의 포토타임이 이어졌고, 이와 동시에 조선의 마지막 황손이자 황실 문화재단 총재이신 세종대왕 28대손 이석 씨가 세종대왕 역할을 맡아 어가행차 재연행사를 이끌었다. 인자한 웃음과 풍채가 누가 보아도 세종대왕의 후손이라 여겨질 정도였다. 행사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과 타 지역에서 세종대왕 어가행차 재연행사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준 수많은 관광객들이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역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각 나라의 자문화가 21세기의 화두로 급부상 중인 요즘, 대한민국은 글로벌 광풍에 휩싸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뿌듯했다. 연극과 영화라는 문화예술이 시대와 역사에 매우 민감한 편인데, 영화학과에 입학한 1학년 새내기로서 또 연극영화학을 배우러 이곳 청주까지 오게 된 학생으로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청주시와 우리나라 문화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많은 지역행사에 참여해 우리 지역의 문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 사랑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세종 르네상스의 '쌈'이 되었던 초정

기록으로 보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는 “청주에서 동쪽으로 39리에
매운 맛이 나는 물이 있는데, 이 물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낫는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초정약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종은 눈병 치료를 위해
초정리에 행궁을 짓고 요양했다고 전해진다. 동국여지승람 외에도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이야기를 소개한다.

“청주에 물 맛이 호초(胡椒) 맛과
같은 것이 있어 이름하기를 초수(椒水)라 하는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1444년, 세종실록
26년 2월 3일자 중에서

격무로 재워 내내 소갈증과 안질 등 여러 질환을 앓던 세종은 1444년 이 '호초 맛'이 나는 물이 있는 초정을 찾았다. 1444년 2월 내섬시윤 김흔지를 통해 초정리에 행궁을 짓게 하고, 두 차례(3월 2일~5월 2일, 7월 20일~9월 21일)에 걸쳐 123일간 요양을 했다. 또한 이곳에서 양로연, 농업, 과학, 음악, 조세 등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며 어진 성군의 마음과 실천을 보여주었다. 마을 백성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주고, 노인들을 초청해 양로연을 베풀었으며, 청주향교에 통감훈의, 성리군서, 집성소학 등의 책 9권을 하사하였다. 당시 중부지역에 가뭄이 계속되자 “청주목 백성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며 집집마다 벼 2섬을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또 어가 행차 중에 전답이 훼손된 농가에는 쌀과 콩으로 보상해주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일반 백성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로 조세법을 정하기도 했다. 조세법을 연분 9등법(풍흉)과 전분 6등법(토질)으로 개정키로 한 뒤 초정약수 인근의 청안현 등에 시범으로 도입하고, 전국에 확대 보급했다.

“세숫대야에 새 약수를 부어
두 눈을 씻으니 세종대왕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정통을 이은 감이 있었다.”

1932년, 한글학자 최현배의 동아일보 특별 기고
“한글순례 청주에서” 중에서

세종은 초정약수를 마시고 또 씻으며 안질을 치료하는 와중에도 대신과 주민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데 힘썼다. 초정약수는 세종이 한글창제를 마무리하고 애민사상으로 르네상스의 정신을 꽃피우게 도와준 '쌈'이었던 것이다. 용비어천가의 '쌈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고'의 쌈이 초정리의 약수(우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세종대왕의 수많은 창조물들은 초정리의 약수와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얻었음이 고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근현대 대표적인 한글학자인 최현배 선생은 일찌감치 초정을 한글의 성지라 여기고, 초정을 순례하며 세종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 세종대왕이 병환으로 방문한 이곳에서도 훈민정음 창제에 골몰했음을 강조했다.

세종실록(좌) / 한글학자 최현배의 동아일보 특별 기고(우)



WOW People

청.인.보(淸人譜) 청대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이 건넨는 이야기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22 청인보 제1장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
강윤제 동문

26 청인보 제2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이재길 동문

28 청인보 제3장

칸·모스크바 영화제 초청작 <설화> 감독
영화학과 김윤식 교수

이처럼 뜨겁게 걸어온 디자이너의 삶

강운제 동문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
산업디자인학과, 94년 졸업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늘 새로워지려 노력하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창(創)이라면, 삼성전자 강운제 전무는 이 시대 최고의 창조인이다. 2006년 보르도 TV를 디자인하며 삼성전자를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려 놓은 그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는 현업 디자이너로 뛰고 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강운제 동문에게 일이란,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세계 TV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다

세계 텔레비전 디자인은 2006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와인잔을 형상화한 보르도 TV는 네모난 상자 일색이었던 TV 시장에서 그야말로 혁신이었다. 가느다란 목이 곡선으로 떨어지는 몸체를 지탱하며 테이블 위에 우아하게 놓인 이 보르도 TV는 출시된 지 16개월 만에 500만대가 팔렸고, 삼성전자를 세계시장 1위에 올려놓은 첫 주인공이 되었다. 보르도 TV를 디자인한 강윤제 동문은 그렇게 TV 디자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예쁜 텔레비전을 만들어 다른 감성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보르도 프로젝트는 틀 깨기를 좋아했던 강윤제 동문의 술한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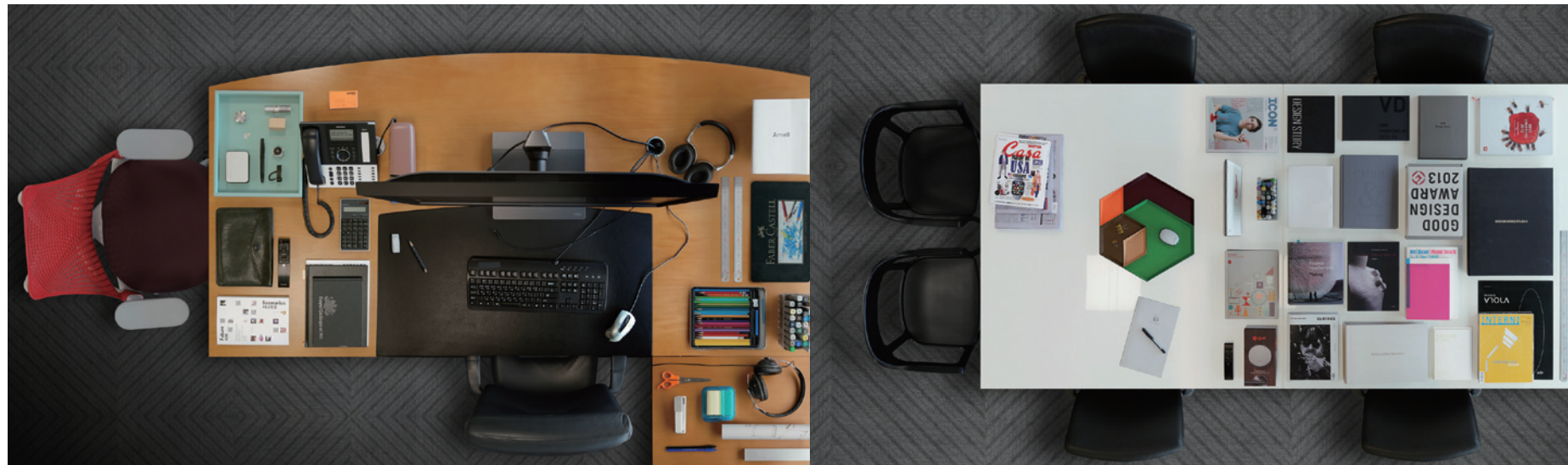
“회사의 기술력도 뒷받침되었죠. 이전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제품을 세상에 내놓아도 될 만한 시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했습니다. 아랫부분이 뾰족한 오각형 모양의 TV 'Rome'을 만들어 처음으로 100만대를 판매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새로운 생각과 기술력, 경영진의 결단 등 모든 합이 이루어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1994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명품 플러스 원, 보르도, 울트라슬림, 타임리스, 커브드 등의 히트작들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강윤제 동문은 세계 최고의 TV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언제나 앞서 가는 그의 디자인은 이제 세계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

체력·실력·정신력으로, 주어진 업(業)을 수행하다

“요즘 제 업(業)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업으로 성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일을 하면서 제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이 행복하고,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강윤제 전무의 직무실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전형적인 임원의 자리가 아닌, 언제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디자인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책상이다.

성실한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조금씩 늘려가 몸의 에너지를 키워가는 것처럼, 디자인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은 모조리, 오로지 디자인에만 몰입해왔다는 강윤제 동문은 뾰족까지 디자이너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같다. 입사 후 실력도, 가진 것도 별로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겸손해졌고, 그만큼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만, 누구보다 강렬했던 디자인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한 번도 받기 어렵다는 '자랑스런 삼성인상'을 세 차례나 수상하고, 열 번에 가까운 특진을 하면서 2007년엔 서른여덟의 나이로 '최연소 임원승진'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일하면서 기쁨도 있고, 또 고동스러운 순간도 있지요. 소비자들이 우리 팀이 디자인한 제품에 열광하고 좋아해 주실 때마다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경험들을 끄집어내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은 정말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체력, 실력, 정신력이 총동원되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인문계 공부를 하다 무작정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창작하는 것이 좋아 집을 뛰쳐나왔던 고3 시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생 처음 고민했던 열 아홉의 시간들이 지금 삶의 단초가 되었다는 강윤제 동문. 그렇게 선택한 디자이너의 길이었기에 이처럼 뜨겁게 걸어올 수 있었다.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의 남다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던 사람은 바로 그의 스승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박사과정 첫 입학 생이기도 했던 산업디자인학과 이재국 교수는 때론 방황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청년 강윤제를 다잡았고 디자이너로 사고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설교했다.

“디자인이 저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많이 와 닿습니다. 세계 삼성전자 입사 지원서를 건네신 분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제 인생에 큰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이나 다름없지요.”

뭘 해도 잘해낼 거라던 스승의 믿음을 지켜내기라도 하듯 강윤제 동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했고, 이제 그의 그릇 안에 담긴 수많은 것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한다. 그것이 선배 디자이너로서의 사명이라 믿는다.

“청년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직장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생 업을 먼저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남이 만들어놓은 설정 값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이죠. 이젠 지금 저와 우리 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트렌드 리더로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개척해나가는 것,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일하는 즐거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사람

이재길 동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행정학과, 08년 졸업

일은 단순한 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존감과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의 일에 대해 좀 더 진지해져야 할 이 시대에 이재길 동문은 그 방향을 짚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1981년 4월 23일, 35년 전 입사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만큼 자신의 일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진 그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이 되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으로 취임한 이재길 동문은 일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테이블 위에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30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안내서를 펼쳐놓고 자신의 일을 설명해주는 이재길 동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대단하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단의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영역이 훨씬 더 방대했다.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 고향에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제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내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쉽게 가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에서부터 일학습병행제, 지역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청년취업아카데미, 자격시험, 기능한국인 발굴, 숙련기술 직업진로지도, 평생학습 지원, 고용촉진, 숙련기술장려사업, 외국인고용지원사업 등. 한마디로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과 관련된 전방위의 일을 다루며, 일하는 이의 역량을 키워주고 또 집중케 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1981년 한국산업인력공단(당시 한국기술검정공단) 충북지방사무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장과 본부의 정보화기획팀장, 자격정보관리팀장 등의 자리를 거치면서 이재길 동문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흐름을 달리해온 '일'을 본인의 일로써 다뤄왔다.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련 업무를 할 때는 모든 원서를 손으로 직접 작성하고 접수했지요. 시대가 변하면서 일이 처리되는 방법도 크게 변화했고, 이제는 일이 단순한 노동의 개념을 뛰어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은 행복하게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이자 최대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그에게 일이란 곧 자부심이다. 본인의 일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작은 부분이나마 에너지를 더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길 동문이 충북지사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일 중 하나가 일학습병행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게 할까 고민했던 그는 얼마 전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20명을 초대해 요리교실을 열었다. 처음엔 모두 의아해했지만, 곧 처음해보는 오이소박이 만들기에 푹 빠져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돌아갔다. 요리를 소통 매개로 기업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싶었던 이재길 동문의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 지난 6월부터 여러 기업들에게서 일학습병행제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 그는 일선에서 중간 이직자들이 많은 것을 안타까워하던 중 근로자들에게 태극기를 선물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근로자들 스스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다소 생뚱맞고 감성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다양한 일을 소화하며, 유유히 그 흐름 속에서 유명해왔기 때문이다. 특히나 일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이 부드럽고도 강한 리더십을 완성해주었다.

“우리 공단과 지역의 대학들이 연계된 사업도 꽤 많습니다. 청주대학교와도 다양한 일이 추진되어 많은 후배들이 진로선택과 미래 개척에 도움을 받을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발맞춰 저희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로 행복하고, 일에서 희망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충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에게서 충북의 자신 있는 얼굴을 본다. ⑤

스크린에 삶의 한 조각을 오롯이 담다

김윤식 교수

영화학과 교수,
칸 영화제·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초청작 <설화> 감독

김윤식 교수의 단편영화 <설화>가 칸 국제영화제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연이어 초청되는 영광을 안았다. 21분 17초 분량의 이 영화 속에는 청주시 곳곳을 누비며 '꼭 필요한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김윤식 교수와 영화학과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있다. 삶의 조각들을 영화라는 틀 안에 담아온 그에게도, 35년 전통과 역사를 이어온 영화학과에도 올해는 가장 특별하고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세상에 꼭 한 번은 내용이 누군가의 가슴 한 자락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영화쟁이들은 기꺼이 그 속으로 뛰어들기 마련이다. 김윤식 교수가 연출한 <설화 (Story of Snow)>는 이처럼 '꼭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깊은 울림과 여운을 주는 영화다. 어린 아들을 잃은 후 자살을 결심하고 산에 오른 한 남자가 산에서 죽음을 결심한 또 다른 남자를 구하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는 우리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실낱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10년 전 청년실업과 자살문제를 고민하다가 죽음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시작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가 있는 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오열이 감정이입 되면서 김윤식 교수는 다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1월 한 달 동안 힘든 촬영을 마쳤다. 그런데, 비교적 덤덤하게 그려낸 이 작품이 대형사고(?)를 쳤다. 지난 5월에 열렸던 제68회 칸 국제영화제에 단편영화 비공식부문 선정작으로 초대된 데 이어, 6월에는 제37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단편영화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다. 또, 7월 15일에는 이탈리아 알타라가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1981년 연극영화학과가 생겨난 이래 이처럼 큰 경사는 없었다.

“엔딩 크레딧에 '이 영화를 자식을 먼저 보낸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바칩니다'라고 썼어요.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이 목을 매는 순간 눈을 감는데, 그 15초 동안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 않아요. 관객도 그와 함께 눈을 감은 것처럼 말이죠. 짧은 순간이지만 관객들이 주인공과 같은 감정으로 그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설화>는 우리대학 출신 영화인 최초의 칸 영화제 진출작이라는 영예 말고도 주목할 만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김윤식 교수는 동문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을 스태프로 꾸려 영화제작의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그 중 촬영을 담당했던 최효석 학생은 김윤식 교수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재원이다.

“학교 워크숍에서 학생들 작품을 꼭 보았는데, 효석이 작품이 유독 눈에 띄더군요. 촬영기법도 연출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에게 효석을 만날 것이 큰 행운이었죠.”

이렇게 제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김윤식 교수도 사실은 김경식 교수의 애제자로,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은 영화적 기운이 상당하다.



김윤식 교수의 영화적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스승 김경식 교수(우)와 <설화>의 촬영감독 최효석 학생(좌)과 함께

“설화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작품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삶의 한 단면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한 조각을 그대로 담아와라, 이렇게 말이죠. 사회에 꼭 필요한 영화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김경식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작업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대학시절 가장 재미있는 곳이 학교였을 정도로 오직 영화를 위해 달려온 김윤식 동문에게 학교는 여전히 가장 큰 배움터다. 우리대학에서 석사까지 마친 후에도 영화이론과 실기를 계속해서 공부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런 그에게 작은 꿈이 있다. 교수와 학생, 동문이 함께 완성한 영화를 정식 개봉을 통해 세상에 내놓는 일이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의미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영화 현장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제지간을 넘어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제자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머물다
온전한 나를 보다, 키우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만
시간의 두터운 겹은
새로운 나만의 질서와 세계를 창조해낸다.
머무름은 멈춤이 아니라 한결같은 방향임을.
그 방향을 따라 비로소 내가 온전해지는 것임을.
그래서 한결같은 곧 위대함임을.



We Are Young

청대인의 젊음과 패기로 만드는 새로운 길

뜨거운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젊은 그대의 심장에,
누구보다 치열한 오늘을 살고 있는
청대인의 땀과 노력에 아낌 없는 갈채를 보냅니다.

32 Young Challenger 1

김희원
체육교육과 13

33 Young Challenger 2

이효진
연극학과 12

34 Young Challenger 3

박동엽
항공운항학과 12

35 Young Challenger 4

이영복
간호학과 10

36 Young Challenger 5

이순재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김희원

체육교육과 13학번
2015년 U리그 대전충북권역
상반기 개인득점 1위

“매 경기 녹색 그라운드를 누빌 때마다 가슴이 뻐뻐합니다. 축구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결같이 제 꿈이었고, 지금은 국가대표라는 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번 대회에서 8경기 8골의 성적을 내면서 자신감과 실력에도 가속도가 붙은 느낌입니다. 전통의 강호, 청주대 축구부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면서 제가 그려왔던 선수의 모습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어 승리를 이끌고 싶고, 언젠가는 꼭 태극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축구는 나의 운명!
멋진 스트라이커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효진

연극학과 12학번
연극 <오뚝이 아저씨 자빠졌다> 연출

“이야기를 몸으로 보여주는 매력에 이끌려 연극을 선택했고, 지금은 연출의 세계에 푹 빠져 몰입하고 있어요. 연출가는 여러 사람의 호흡과 열정을 이끌어내고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지만 꽤 매력적이거든요. 이번에 연극학과 4학년 졸업작품으로 무대에 올린 <오뚝이 아저씨 자빠졌다>를 연출하면서 동기, 후배들과 나누었던 깊고 짜릿한 교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극은 시대를 말해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유랑극단을 만들어서 제법 근사한, '무대'라는 큰 거울을 세상에 선물하고 싶습니다.”

무대 위
또 다른 세상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고 싶습니다

박동엽 항공운항학과 12학번
2015년 공군조종장학생 1차 합격

“작년에 처음 비행기를 운전해서 하늘을 나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의 벅찬 감동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공군조종사가 되어 전투기를 타고 말겠다는 저의 오랜 꿈에 한 발짝 크게 다가섰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에서 최신 기종의 비행기로 이착륙 연습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운항학과 학생들 모두 매일 당당한 파일럿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150시간 넘게 비행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땅과 하늘을 감상할 여유도 생겼어요. 이제 곧 졸업인데, 비행연습에 좀 더 매진해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베테랑 조종사로 거듭나겠습니다.”



4학년, 마지막 여름방학, 영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영복 간호학과 10학번
하계방학 원어민 영어회화
집중과정 수료

“대학에서의 마지막 여름방학이 영어공부로 인해 한층 더 특별해지고 뜻깊어진 것 같습니다. 소수정예반에서 원어민 교수와 함께 공부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공부하지 못할 사람처럼 몰입하며 파고들었던 지난 3주가 무척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내 생각을 영어로 거침없이 말할 수 있게 된 자신감으로 글로벌한 간호사가 되어 현장을 누비고 싶습니다. 그 후엔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려있을 거라 믿으며, 항상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청년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순재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대한건축학회 201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우리 학과 건축재료시공연구실은 저에게
배움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를
파고들면서 연구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경량기포
모르타르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상을 받으면서 제 능력이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내심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처럼
새로운 건축재료 분야를 계속 탐구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더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연구의 즐거움 안에서
배움의 열매를 맺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Issue & News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과 내일을 잇는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과 혁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8 Focus On

청주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착수 외

42 News Brief

산업디자인학과,
8년 연속
레드닷 수상 외

44 People News

조승래 교수,
학술원 2015 우수학술도서
선정 외

46 Special Lecture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명사특강 외

**Focus
1**

청주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착수

우리대학이 총 예산 250여억 원 규모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5월 14일 우리대학은 본관 대회의실에서 황신모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중앙도서관, 기획처, 사무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서관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 따르면 우리대학이 새로 증·개축하는 중앙도서관은 총 면적 15,487㎡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105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서고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2,200여 석의 좌석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카페테리아와 옥상정원, 실내정원인 아프리움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룹스터디 룸 등이 새롭게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대학은 조만간 공사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16년 11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 3월 최종 개관한다. 증·개축 기간 동안 현 중앙도서관의 기능은 바로 옆 건물인 새천년종합정보관, 구 체육관 등에 일시적으로 분산 이전된다.

황신모 총장은 “대학의 저력은 중앙도서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현 도서관이 과거 30여 년간 청주대학교의 심장 역할을 한 것처럼, 새로 개축하는 도서관이 앞으로 우리대학의 진정한 중심이 되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청주대 중앙도서관은 국내 유명 건축가 김종성 씨의 설계로 1986년 2월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관한 바 있다.

**Focus
2**

청주대 축구부, U리그 8연승 질주

우리대학 축구부가 지난 5월 29일 우리대학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15 카페베네 U리그 홈경기서 전 통의 강호 충북대를 1대 0으로 꺾고 7연승을 기록한 데 이어, 6월 5일 탄금잔디구장에서 열린 중원대와 의 경기에서도 4:0으로 대승하며 파죽의 8연승을 이어갔다.

특히 우리대학 다목적문화체육관 축구전용구장에서 첫 홈경기로 열린 충북대와의 경기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명승부였다. 경기 전반 두 팀 모두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슈팅은 많지 않았다. 전반 13분경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파울을 범한 충북대 측에 페널티 킥이 선언됐었지만 충북대 김영익 골키퍼의 선방으로 팽팽한 균형은 계속 이어졌다. 경기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 건 후반 29분 충북대 박성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하면서부터였다. 3분 뒤인 후반 32분 대전충북광역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대학 김희원 선수의 천금같은 결승골이 터졌다. 박승우 선수의 크로스에 이어 김희원 선수가 그림 같은 다이빙헤딩 슈트를 성공시키자 경기장을 찾은 우리대학 응원단의 환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대학 조민국 감독은 “프로에서도 8연승은 어려운 일이다. 1골 승부, 역전승 등 쉬운 경기가 없었는데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모두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후반기에 득점력을 조금만 더 높인다면 왕중왕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대학 축구부는 올해 전 울산현대 조민국 감독과 국가대표 출신 이을용 코치를 영입하는 등 축구부의 성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전국 78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는 2015 카페베네 U리그에서는 현재 우리대학과 인천대 2개 대학만이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



**Focus
3**

**청주대, 2015 1학기
신임교원 임명장 수여**

우리대학은 지난 5월 11일 오후 4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1학기에 임용된 신임교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기에 우리대학은 정년계열 11명과 교육전담교원 5명, 외국인 전임교원 16명 등 총 32명을 신임교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년도 66.28%에서 5.34% 상승한 71.62%가 된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상 대학인 163개 대학 가운데, 우리대학의 자체조사 결과 2014학년도 기준 42위 수준이다.

이에 기획처 정규호 처장은 “꾸준히 전임교원 확보율을 올려나갈 방침”이라며, “학생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년계열과 교육전담교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동원(태양광에너지공학과) △김규민(영어영문학과) △김성훈(건축학과) △김영미(음악교육과) △김윤섭(항공운항학과) △김진희(임상병리학과) △김태형(항공기계공학과) △민지현(치위생학과) △백승관(건축학과) △서경산(간호학과) △윤상희(공예디자인학과) △이성훈(제약공학과) △장경숙(간호학과) △정규형(만화애니메이션학과) △채영태(건축공학과) △홍재석(의료경영학과)



**Focus
4**

**산디과-삼성전자,
디자인개발 산학협력 체결**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와 삼성전자(대표이사 권오현)가 지난 5월 27일 우리대학 예술대학에서 양 기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디자인 개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디자인학과 지도교수(김동하, 조성배, 이재순)와 삼성전자 관계자 그리고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디지털 생활가전의 제품 디자인 공동개발, 전문가 자문 및 연구,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참여해 다양한 선행 디자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실무책임자인 이혜미 CMF 파트장은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와의 산학협력을 계기로 학과 교수들의 전문적인 자문과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디자인 명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인 iF, IDEA, red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8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고 있다. 특히 디자인 인증기관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아·태권역 디자인대학 부문에서는 랭킹 14위에 오른 바 있다. 250여 개의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상위권의 실적을 자랑하는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글로벌 일류기업인 삼성전자와의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그 역량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디자인학과, 8년 연속 레드닷 수상



산업디자인학과가 세계적 권위의 red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5명이 입선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 수상작은 장영희(4학년) 학생의 'Electric Multi Kettle', 최미령(4학년) 학생의

'Caremom', 박세은(4학년) 학생의 'O check', 윤소영(4학년) 학생의 '3 in 1 bin', 이진영(4학년) 학생의 'Watering Spray' 등 총 5점이다. 이중 장영희 학생의 'Electric Multi Kettle'과 최미령 학생의 'Caremom'은 특별히 디테일이 훌륭한 작품에 수여되는 '아너러블 멘션(Honourable Mention)'을 획득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간호학과, 간호교육 인증 획득



간호학과가 간호교육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14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부분에서 인증 판정을 받았으며, 유효기간은 2015년 6월 11

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해마다 2차례씩 간호대학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건축공학과, 건축학회 우수졸업논문상 등 수상



건축공학과 대학원 및 학부생들이 대한건축학회에서 개최한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과 우수졸업논문상을 대거 수상했다. 전국 100여 개 대학에서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대학은 대학

원생 강병희 씨가 우수졸업논문전에서 석사부문 최우수상을, 자오양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학사부문 장려상에서도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거행



간호학과 3학년 학생 86명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지난 5월 7일 오전 청암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선서를 하는 학생들 외에도 재학생들과 학부모, 대학과 병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서식은 국민

의례, 촛불의식, 나이팅게일 선서,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예비간호사로 첫 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이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간호 전문직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행사로, 3학년 학생들이 본격적인 병원 임상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호사로서의 사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추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주대,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 경찰 체험학습 참여



우리대학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 30명의 학생들이 지난 5월 27일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열린 치안서포터즈 경찰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이번 경찰 체험학습은 내덕지구대에서의 무전기 실습과 순찰차 탑승 등에 이

어, 충북지방경찰청에서의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 지문채취 실습, 교통정보센터와 112종합상황실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허진평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경찰 체험학습 등의 행사에 초청해준 한국 경찰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주대, 중소기업 인식개선 특강 실시



우리대학은 지난 4월 28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 사회공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200여 명의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취업자들의 합리적인 취업기치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특강은 중소기업의 현황, 우수 중소기업 구별법, 우수 중소기업 취업 성공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의 장점을 알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현직에 있는 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주대, '인성교육 3.0' 사업 선정

우리대학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인성교육 3.0'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공모에서 우리대학은 교직과 최미나 교수가 책임강의를 맡고, 광고홍보학과 정상수 교수와 경영학과 이원준 교수, 패션디자인학과 이유진 교수가 함께 응모한 '스펙보다 인성: 역할 바꿔보기를 통한 나만의 명품 인성 만들기'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주대-중서호텔관리대학 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중국 베이징시 중서호텔관리대학(총장 까오쑹타오(高松涛))과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4일 오후 우리대학 미래창조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신모 총장과 중서호텔관리대학 까오쑹타오

총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교는 앞으로 호텔경영, 관광경영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게 된다.

청주대-중앙선거방송토론위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가 지난 4월 13일 미래창조관에서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교류와 대외홍보 등

토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추진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대학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공동주관으로 오는 8월 12일부터 양일간 우리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한편, 대학생토론대회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정립과 민주적인 토론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200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50여 개 대학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다.

교수소식

조승래 교수, 학술원 2015 우수학술도서 선정



역사문화학과 조승래 교수의 저서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서강대 출판부 펴냄)가 대한민국 학술원이 선정하는 2015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이번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은 그의 저서인 <공화국을 위하여>(길 펴냄)와 역서인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푸른 역사 펴냄)에 이어 세 번째로서 학계에서는 흔치 않은 일로 평가받고 있다.

도정남 교수, 이데일리 문화대상 심사위원 위촉



연극학과 도정남 교수가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전통, 뮤지컬, 콘서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시상식에서 도정남 교수는 무용 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승두 교수,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취임



법학과 박승두 교수가 한국사회법학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포괄하는 사회법 전반에 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회법학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와 사회법포럼 등을 개최하고, 학회지 <사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손일락 교수, 저서 <별을 꿈꾸다> 출간



호텔경영학과 손일락 교수가 저서 <별을 꿈꾸다>(들녘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28세에 교수가 된 이후 학생들과 생활하며 언제나 고민해 온 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성찰의 내용이 담겨있다.

신희주 교수, 충북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협연



음악교육과 신희주 교수가 지난 5월 15일 청주 아트홀에서 열린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제18회 정기연주회 <가족사랑 음악회>에서 협연자로 무대에 올랐다.

가정의 달을 맞아 모래와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와 피아노 협연으로 구성된 이번 가족사랑 음악회에서 신희주 교수는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피아니스트 신경아 씨와 협연했다.

김혁수 교수,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장 취임



호텔경영학과 김혁수 교수가 지난 6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의 '2015 국제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대회의 시상식과 더불어 진행된 회장 취임식을 통해 김혁수 교수는 "전임 회장과 학회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현대·관광산업의 최고 학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재학 교수, '한중일 지방공항 활성화 국제 세미나' 주제 발표



관광경영학과 김재학 교수가 지난 5월 28일 CJB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공항 활성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관광산업 관점에서 본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기회 증진'이라는 주제 발표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한국공항공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와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 3개 도시의 지방공항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의 문제의식 속에 마련됐다.

임승빈 교수, 제35회 장애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어국문학과 임승빈 교수가 제35회 장애인의 날 정부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1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임승빈 교수는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으로서 그동안 지적장애인지리지원센터 및 장애발생예방과 상담센터 운영 등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동문소식

장호수 동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임명



장호수(대학원 박사과정, 2013년 졸업) 동문이 지난 6월 8일 제6대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장호수 원장은 그 동안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전문위원과 충북도 문화재연구원장,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사적분과 전문위원, 대전시 문화재위원을 거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해왔다.

김창영 동문, 한국안전인증원 제5대 이사장 취임



김창영(경영학과, 94년 졸업) 동문이 지난 5월 1일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안전인증원은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02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상과 공간안전인증제 등을 주관·실시하고 있다.

전성규 동문, 대전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임용



전성규(법학과, 81년 졸업) 동문이 대전시교육청의 개방형직위 감사관 공모에서 총무담당 사무관으로 최종 합격했다.

1차 서류 및 면접 시험, 2차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된 전성규 사무관은 우리대학과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3년 충남교육청 소속 전 의중에서 공직에 입문, 1989년부터 대전교육청에서 근무해왔다.

김현승 동문,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창작지원상 수상



김현승(영화학과 12학번 휴학중) 동문이 지난 5월 6일 열린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소년>으로 CGV 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쟁부문에 초청된 독립장편 영화 가운데 소재와 주제, 형식에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김현승 감독은 차기작 기획개발비 1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박시중 동문, 청주시립무용단 5대 상임안무자 선정



박시중(무용학과, 94년 졸업) 청주시립무용단 5대 상임안무자로 선정됐다.

청주 출신의 대표 무용가인 박시중 동문은 청주시립무용단의 3대 안무자로서 무용단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고, 현재 우리대학과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박시중무용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종찬 동문, 충북체육회 상임부회장 선임



이종찬(대학원 체육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충북체육회의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육상 선수 출신의 신임 이종찬 상임부회장은 중학교 체육교사를 시작으로 충북도교육청 체육과장과 충북체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정정순 동문, 지방행정연수원장 직무대리 발령



정정순(행정학과, 81년 졸업) 동문이 지방행정연수원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중국 지안(集安) 공무원 버스사고 수습 중 숨진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직무를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대행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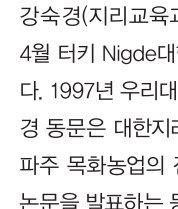
구본민 동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취임



구본민(대학원 법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지난 5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89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대전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내다가 2009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온 신임 구본민 이사장은 앞으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강숙경 동문, 터키 Nigde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 임용



강숙경(지리교육과, 97년 졸업) 동문이 지난 4월 터키 Nigde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1997년 우리대학 지리교육과를 졸업한 강숙경 동문은 대한지리학회지를 통해 '터키 상르울 파주 목화농업의 전개와 지역사회의 변화'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지리학을 기반으로 한 터키 지역 연구에 몰두해왔다.

명사초청 특별강좌 2015년 5월~6월

2015. 5. 6

충북 4% 경제 도정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5월 6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에서 '충북 4% 경제 도정'에 대해 전했다. "4% 경제가 살아야 충북이 산다"고 강조한 정정순 부지사는 "전국대비 경제의 4%를 키우기 위해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주대 동문으로서 "성공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후배들에게 "꿈을 가지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정순 전 행정부지사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우리대학 행정학 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충북 경제통상국장, 경제투자본부장, 청주시 부시장,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지난 6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2015. 5. 20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명재 명정보기술 대표이사



지난 5월 20일 청암홀에서는 정보기술 서비스회사인 명정보기술 이명재 대표의 명사초청 특별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명재 대표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찬란한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닥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조언하며 "행복이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이 대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나 자신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을 당부했다. 이명재 대표는 2006년 정보화 유공 국무총리상, 2011년 제4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국무총리상, 2012년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다.

2015. 5. 27

기업의 본질은 사람이다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지난 5월 27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에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이 강단에 섰다. "기업의 본질은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오석송 회장은 "기업은 생각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기업이 원하는 가치관과 부합하는 인재가 많아야 회사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단국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2009년 글로벌 최고 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코스닥협회 부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단이사를 겸하고 있다.

2015. 6. 3

교육문화 도시, 청주의 미래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 6월 3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2015년 1학기 마지막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주인공으로 강단에 섰다. 이 자리에서 청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이승훈 시장은 "과거의 청주시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타이틀을 회복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청주시를 최고의 교육문화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여러분도 그 인재 중 하나이니 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1978년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7년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2008년 충청북도 정부부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 메릴랜드대 공공정책학 석사, 충북대 행정학 박사 등을 취득했다.

2015. 5. 13

위기를 이겨내는 혁신의 힘

장창덕 한양이엔지 부회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인 한양이엔지 장창덕 부회장이 지난 5월 13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사로 나섰다. 강연을 통해 "위기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장창덕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했을 당시 IMF시대의 경영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 파격적인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도태한다"며 학생들에게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장창덕 한양이엔지 부회장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삼성전자에서 기획팀장, 영장사업부장, 모스크바 법인장, CIS총괄직을 거쳐 삼성전자 국내영업 사업부장(부사장)을 지낸 바 있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종류

대학발전기금_ 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발전기금_ 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대학발전기금_ 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대학발전기금_ 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 공연예술지원기금

- 연극/영화지원기금
-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급여 이체

청주대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363-764)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힘! 청주대학교

68년 전통의 명문사학 청주대학교가 신수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합니다.
학생 중심, 교육 중심이라는 두 개의 든든한 기둥을 세워
학생 개개인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세계 29개국
150여 개 대학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입생 전원
수용이 가능한
최신 아파트형 기숙사
(2,300여 명)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도교수제 운영

공직 진출을 위한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청주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안내

원서접수 2015. 9. 9(수) 09:00 ~ 9. 15(화) 21:00

실기고사 2015. 10. 7(수) ~ 10. 11(일)

문의 청주대학교 입학관리팀 (043)229-8033, 8034
http://www.cju.ac.kr/web/ipsi